

[보도자료] 전통시장 오픈마켓 진출 "쿠팡 통해 온라인 경쟁력 갖췄다"

2022. 12. 16.



- 쿠팡X중소벤처기업부X동반성장위원회X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지원사격
-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기획전 열고 최대 30% 할인 및 마케팅 지원

2022. 12. 16. 서울 - 쿠팡이 전통시장의 마켓플레이스 진출을 지원한다.

쿠팡은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획된 이번 기획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기획전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전통시장 점포 상품의 광고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처음 입점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입점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약 1,800만명의 쿠팡 활성고객이 쿠팡에서 30여 개 전통시장 상점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표상품으로는 순수꽃차 수제청, 오빠네 견과류 견과강정, 아산한양떡집 영양찰떡 등이 있다.

해당 기획전은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된 '착한상점' 카테고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착한상점'은 별도의 상위 판매 페이지에서 전국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전문관이다.

쿠팡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공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획전도 해당 협약의 일환으로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통시장 내 상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2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 10일간)'와도 취지를 함께한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에서 '2022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린다. 오늘 행사에는 쿠팡을 비롯한 유통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지난 9월 체결한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시장의 디지

털 전환 및 지역 공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 쿠팡의 많은 고객을 만나 성장기회를 얻고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쿠팡 이츠서비스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적응을 돕고 있다. 온라인 판매 방법을 교육하고 쿠팡 이츠 입점 절차를 코칭하며, 고객용 쿠폰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쿠팡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전국 106개 시장에서 1300여 점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00여 가맹점의 올해 1~3분기(1~9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77% 늘어났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